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제5차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2. 출장목적: 제5차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 참석
3. 출장지역: 중국 북경시
4. 출장기간:
 - 제1진(5명): 2007년 10월 14일(일)~10월 16일(화)(2박 3일)
 - 제2진(3명): 2007년 10월 14일(일)~10월 18일(목)(4박 5일간)
5. 출 장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출장 기간	비 고
최정섭	원장실	원장	'07. 10. 14 ~ 16	좌장(제1세션)
어명근	국제농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07. 10. 14 ~ 18	간사
박현대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07. 10. 14 ~ 16	지정토론(제3세션)
황의식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연구위원	'07. 10. 14 ~ 16	지정토론(제1세션)
송미령	농업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07. 10. 14 ~ 16	지정토론(제2세션)
이상민	산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07. 10. 14 ~ 16	주제발표(제3세션)
마상진	농업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07. 10. 14. ~ 18	주제발표(제2세션)
정호근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전문연구원	'07. 10. 14. ~ 18	주제발표(제1세션)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10월 14일(일)	리셉션 참석	8명 전원
10월 15일(월)	제5차 국제심포지엄 참석	8명 전원
10월 16일(화)	세계은행 세미나 참관	3명
10월 17일(수)	현장 견학	3명

II. 주요 출장 결과

1. 제5차 FANEA 국제심포지엄 참석

- 2007년 10월 15일 중국 북경시 우의빈관에서 개최된 제5차 동북아 농정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농촌 금융과 보험”, “동북아 지역의 고령화와 농촌 개발”, “바이오 에너지 개발과 동북아 농업에의 영향”이라는 3개 주제에 관해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주제별로 한 명씩 3명이 토론에 참가하였음(부록 참조).

- 아 래 -

제1세션(10: 20-12:00): 동북아 농촌 금융과 보험

- ▶ 좌장: 최 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 발표:
 - “한국농업 금융의 현재와 미래” (정 호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국의 곡물 생산 및 위험지역 등급화와 농업보험 정책”(리싱, IAED/CAAS)
 - “일본의 농업 농촌 금융 현황” (하세가와 고세이, PRIMAFF)
- ▶ 토론:
 - 가와하라 쇼이치로(PRIMAFF)
 - 판 생엔(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 황 의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세션(13:30-15:10): 동북아 지역의 고령화와 농촌개발

- ▶ 좌장: 친 푸(IAE/CAAS 소장)
- ▶ 발표:
 - “일본 농촌의 연령구조 실태와 요인” (마쓰히사 쥬토무, PRIMAFF)
 - “한국 농촌 노인의 생산 활동과 관련 변수” (마 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국 농촌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장 쓰웨이, IAE/CAAS)

▶ 토론:

-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야마시타 노리히로(PRIMAFF)
- 리 산데(IAED/CAAS)

제3세션(15: 40-17:20): 바이오 에너지 개발과 동북아 농업에의 영향

▶ 좌장: 고니시 고조(PRIMAFF 소장)

▶ 발표:

- "바이오 에너지 개발과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류 샤오혜, IAED/CAAS)
- "브라질 바이오 에탄올의 대일 수출: 세계 설탕 시장의 계량경제적 시뮬레이션" (고이즈미 다쓰지, PRIMAFF)
- "한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 동향과 전망" (이 상민, KREI)

▶ 토론:

- 리 첩귀(RDI/CASS)
- 박 현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엔도 요시히데(PRIMAFF)

2. 2007년 FANEA 기관장 회의

○ 일시: 2007년 10월 15일 오전 8시~9시

○ 장소: Friendship 호텔 우의궁

○ 참석자: 최 정섭 KREI원장, 친 푸 CAAS/IAE소장, 고니시 고조 PRIMAFF소장, 어 명근 KREI국제농업센터 선임연구위원, 엔도 요시히데 PRIMAFF연구기획조정부 연구조정과장, 리 수오핑 IAED/CAAS기획조정실장

○ 주요 내용

1) 2008년 제6차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 일시

- 2008년 10월 경 일본 PRIMAFF 청사 이전 관계로 현 청사에서 2008년 6월 초 개최 제안 및 합의

2) 제6차 FANEA 국제심포지엄 주제 관련

- 일본은 제6차 국제심포지엄 주제 공개 모집 제안
- 농촌 개발 분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잠정적 주제로 포함

3. 세계은행 연구과제 최종보고 참관

○ 개회식(8:30-9:00)

- 사회: 완 바오루이 전국인민대회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사회
- 환영사: 자이 후쿠 CAAS 원장
- 축사: 재정부, 농업부, 세계은행 내빈

○ 기조 연설(9:30-11:00)

- 사회: 장 리지엔 CAAS 부원장
- 연설 1: “과제 소개”(친 푸 IAED/CAAS소장)
- 연설 2: “중국의 농산물 교역정책”(친 케밍 농업부 농업촉진센터 소장)
- 연설 3: “농업 정책이 세계 농촌 개발에 미치는 영향”(조아킴 폰 브라운 IFPRI 소장)

○ 논문 발표(11:00-17:40)

- 사회: 수에 리양 농업부 총무국장
- 발표 1: “중국의 통합 농업생산성”(왕 지민 IAED 과장)
- 발표 2: “WTO와 농산물 무역”(쑤 동생 IAED 과장)
- 발표 3: “중국의 CGE 모형”(류 샤오헤 IAED 연구위원)
- 발표 4: “농업 과학과 기술 진보”(자오 지준 IAED 과장)
- 발표 5: “농업 보조와 보호 정책”(리 산테 IAED 연구위원)
- 발표 6: “새로운 형태의 중국 농촌 건설”(장 헤핑 IAED 과장)

4. 현장 견학

○ 방문 기관 1: 북경시 방산구 한촌하(韓村河)촌

- 방문 기관 개요: 한촌하 농촌 관광마을은 북경시에서 남서쪽으로 40km 거리에 있는 방산구에 위치하고 있음. 한촌하 마을은 북경시에서 관광 풍치지역 AAA 등급을 최초로 수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과 관광 시범 마을로 지정된 곳임. 당 위원회 티안 시웅(田雄) 위원장의 지도하에 개혁과 개방이 시작된 이래 한촌하 마을은 집단농장의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가난하고 낙후된 한촌하 마을을 아름다운 농촌시가지로 변화시킴으로써 부락 주민들의 공동 번영을 실현한 사례임.
- 방문 결과 및 평가: 한촌하 마을은 빈곤한 농촌 부락을 수려한 경관과 높은 소득, 그리고 학교와 문화시설 등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지역으로 변모시킨 사례로 북경시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농업이나 관광산업보다는 집단 농장이 소유한 시멘트 업체의 수익에 의한 것임. 견학 장소도 대부분 기념관과 박물관 수준의 전시 사례에 불과하며 유리온실은 실제 생산용이 아닌 관광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마을 주민의 20% 정도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시멘트 업체에 근무하거나 북경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태임. 따라서 한촌하 마을은 국민소득이 낮고 농업 여건이 어려운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농업과 관광을 결합하여 고소득을 창출하고 쾌적한 주거형태로 변모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설적 사례로 판단됨.

○ 방문 기관 2: 북경시 신발지(新發地) 농산물 도매시장

- 방문기관 개요: 북경시 남쪽 남4환로 인근에 위치한 신발지 도매시장은 북경시 북부의 대종사(大鐘寺) 도매시장과 함께 북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양대 농산물 도매시장임.
- 방문 결과 및 평가: 시장 방문 시간이 오후인 탓에 거래 농산물은 마늘, 쪽, 대파, 생강 등 일부 채소에 불과. 출하물량 산지는 하북성과 산둥성

또는 흑룡강성이나 내몽고도 포함됨. 신발지 도매시장은 아직 경매 방식의 거래 형태가 도입되지 않아 농산물 판매상 대부분은 트럭에 적재된 물량이 매진될 때까지 직접 시장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임. 그만큼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과 같이 고온다습한 기후에는 판매 대기 중 부패 등으로 인해 수확 후 손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5. 평가 및 제안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은 2003년 이후 한·중·일 3국이 매년 한 차례씩 주최하여 2007년 제5차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음. 5년간 5차례의 국제심포지엄에서 모두 53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FANEA 심포지엄에서 발표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3개 기관 소속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향후 참석 대상 기관을 국내외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주제 발표자를 엄선하여 수준 높은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과 일본은 FANEA 관련 업무를 연구기획조정실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제농업연구센터에서 맡고 있어 국제심포지엄 참여 등 업무 추진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금년 국제심포지엄 발표 및 토론자 6명 전원이 심포지엄 직후 기본과제 연구결과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어 참가자 4명이 중도 귀국하였음.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나 핵심 의제는 대부분 농업 일반의 문제인 점에 비추어 향후 FANEA 업무를 연구원 전체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논문 발표자나 토론자 선정 및 위촉시 FANEA 담당자가 아닌 기획조정실 명의로 위촉할 경우 연구원 전체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는 책임감과 긍지를 심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부록 1: 한국측 발표 논문(3편) 요약.

* 부록 2: 제5차 FANEA 국제심포지엄 관련 주요 사진.

부록 1. 발표 논문 요약

한국 농업금융의 현재와 미래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Agricultural Financing)

전문연구원 정호근

농업만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 그리고 시장실패 등의 이유로 농업금융은 민간만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공공금융의 역할이 있다. 농업 환경변화 그리고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 농업금융이 적응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금융은 자금의 공급처 면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금융, 민간은행을 포함한 일반금융, 사금융 그리고 정부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금융을 담당하는 주체로 보면 정책금융과 신용보증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일반금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호금융을 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있다.

농업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정책금융에서 종합자금제도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의 운영자금지원에서 대부분의 사업부문을 종합자금제도로 가져와 수요자가 양과 범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특별보증 그리고 파산농가 증가 등의 이유로 기금이 고갈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선 기금을 추가하고 보다 경쟁구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상호금융은 영세한 현재의 규모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조합간의 합병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신용센터 운영과 같은 보완적인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금융과 공공금융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수요자와 시장중심의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농업금융의 발전과 이를 통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농촌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관련 변수

(Productive Activities of the Korean Rural Elderly and their Related Variables)

부연구위원 마 상 진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여 현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고,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 경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농촌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도시에 비해 20년 이상 고령화가 빠르다.

이와 관련하여 노령기의 복지를 연구하는 노년학(gerontology)자들의 성공적 노령화(successful aging) 제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을 무능하고 의존적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이며 생산적이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노인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생산적 노령화는 노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복지에 도달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쁨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령화는 병이나, 신체적 기능, 사회적 지지 등과도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ies)과 관계가 있다.

생산적 활동은 유료 또는 무료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paid work), 가족지원활동(care-giving), 자원봉사(volunteering)로 나뉜다. 이 연구는 농촌의 노인들이 수행하는 다수의 활동들이 생산적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변인들이 이러한 활동과 관련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노인생활실태조사(2004) 데이터를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농촌노인들의 생산적 활동 참여실태 및 개인특성변인과 생산적 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 노인 중, 농업 종사를 통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47%로 이는 도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비율(20%)의 두배 이상이었다. 농촌 노인중 78%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경제적 부조, 간호, 아이돌보기 등의 가사지원을 하고 있었다. 한편 10%의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는 도시 노인들보다 5% 정도 낮은 참여율이었다.

한편, 성, 연령, 교육정도, 활동장애, 개인소득, 건강, 조직활동참여, 가정구

조, 사회경제적지위, 직업 등이 농촌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직업이 농업인 농촌노인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비 경제적 생산 활동(가족지원, 자원봉사) 참여가 높았고, 좋은 건강상태인 노인이 생산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았다.

농촌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농촌의 사회 정책이 노인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회, 경제, 문화, 자원 봉사 활동에서의 노인들의 참여가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농업종사활동외에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관광 등의 농촌개발활동에서 농촌노인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한 생산적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생산적 활동과 그 활동의 경제적 보상, 심리적, 물리적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연료 생산 현황과 전망 (Current and Future Aspects of Bio-fuel Production in Korea)

부연구위원 이상민

이 연구는 한국의 바이오연료 가운데 상용화 단계에 있는 바이오디젤을 중심으로 생산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농업과 관계된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하였다. 화석 연료 가격의 급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특히 바이오연료에 대한 한국의 개발 상황은 거의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총 2만 3,229kl(약 2만 546톤¹⁾)를 생산하였으며, 2006년에는 약 5~6만 kl(4만 4,225톤 ~ 5만 3,070톤), 2007년에는 약 9만 kl(7만 9,605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수입산 대두유와 폐식용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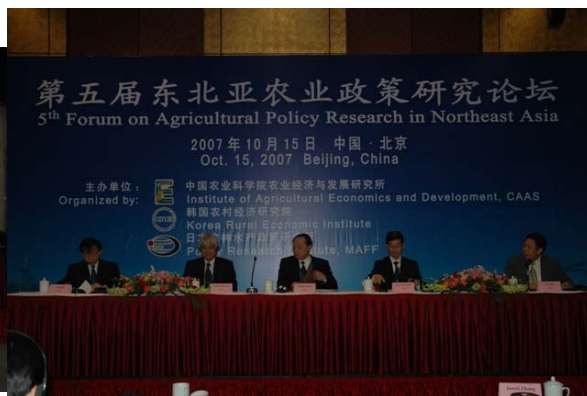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1995년~2005년 기간 동안 438% 증가하였으나 총1차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에 불과하며,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3.7%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목표를 2011년까지 총1차에너지 예상 공급량의 5%, 2005년 공급량의 5.8%인 1,333만 5천 toe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세제와 융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데, 농업에서는 안정적인 연료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 개발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 가운데 유채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가장 유망하게 고려되어 다양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1kl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면, 보리를 대체하여 생산할 경우 859천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반면 휴경지를 이용하여 유채를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544천원/kl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오디젤 원료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면, 정부의 경광보존직불금 혜택을 받을 경우 순편익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손실이 계측된다. 따라서 보조금 제도가 없을 경우 유채재배

1) 바이오디젤 부피-무게 전환계수 0.8845 적용, 즉 $1\text{kg} = 1\ell \times 0.8845$

의 경제적 이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바이오연료 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에너지 연료작물 생산자의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지속적인 소득보전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은 시장을 왜곡하여 균형 있는 자원분배를 방해하므로 가능한 짧은 시기동안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물을 이용해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제 2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부록 2: 제5차 FANEA 국제심포지엄 주요 사진





<World Bank 최종보고회>



<한촌하 농촌 관광 마을>



<신발지농산물 도매시장>

